

96.4.8

초등학교 남학생이 10% 더 많아

지난해말 기준...불균형 심화 사회문제화 가능성

지창은 기자

초등학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많은 '남초'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.

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으로 초등학교 취학연령인구(6~11살)는 남자 2백7만5천여명, 여자 1백88만여명 등 모두 3백95만5천여명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19만4천5백여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. 이는 여학생 1백명당 남학생이 1백10명꼴로, 지난 93년의 1백8명, 94년의 1백9명보다 그 불균형이 더 깊어진 것이다.

특히 전체 초등학교 학령인구가 94년보다 12만4천여명이 줄어

드는 등 91년 이후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여온 것으로 미뤄 자녀를 적게 갖는 풍조가 자리잡으면서 남아 선호가 더욱 뚜렷해진 것으로 분석된다.

이런 현상은 중학교와 고교, 대학 학령인구에서도 나타나 △중학교(12~14살) 남자 1백27만4천여명, 여자 1백19만3천여명 △고교(15~17살) 남자 1백23만9천여명, 여자 1백16만2천여명 △대학(18~21살) 남자 1백67만9천여명, 여자 1백57만3천여명으로 각각 남자가 여자보다 8만1천1백여명, 7만6천7백여명, 10만5천여명씩 많았다.

이처럼 남자 초과현상이 지속

적으로 심화되면서 초등학교의 경우 여학생과 짝을 이루지 못하는 남학생이 놀림을 당하거나 여학생들에게 잘 보이려고 과잉행동을 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. 또 이들이 앞으로 진학과 취업을 거쳐 결혼 적령기에 이르렀을 때 남녀 성비 불균형은 더욱 큰 사회문제로 확대될 것으로 우려된다.

교육부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"남아초과 현상은 기본적으로 무분별한 태아 성감별과 그에 따른 인공유산에 그 원인이 있다"면서 "이제는 국제적으로도 이 문제가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"고 말했다.

1995